

K-컬처를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추진

- 글로벌 진출을 위해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를 선발하여 최대 1억 원 지원
- 실제 수출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, 제품 개발, 마케팅·판로 등 단계별 패키지 지원 추진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수출 역량을 보유한 유망 소상공인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「2026년 글로벌 소상공인(K-소상공인) 육성 사업」을 4.20(월) 공고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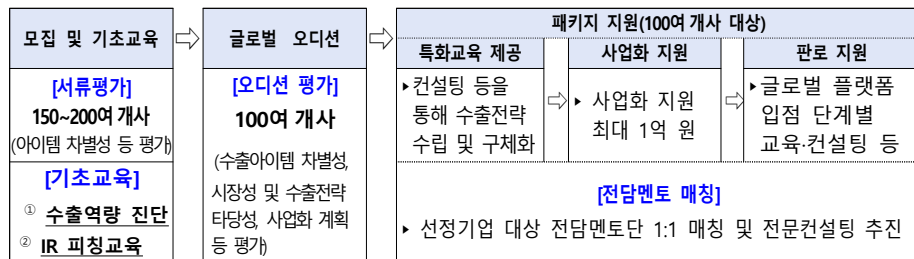
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유망 소상공인에게 수출역량 강화, 수출형 제품 개발 및 해외판로를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 새롭게 도입됐다.

수출 경쟁력이 강한 기업 대상*으로 비즈니스 모델**에 따라 로컬트랙 60개사, 혁신트랙 40개사 등 총 100여 개사를 선발하며, 실제 수출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교육, 제품 개발, 마케팅·판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.

* 최근 3개년도(23~25) 중 1개년 연간 수출실적 3만 불 이상 기업, 강한소상공인·신사업창업사관학교·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既 지원기업, 3년 이내 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사업 민간운영사에게 기투자 받은 기업 중 1개 이상 충족

** (로컬트랙) 지역 고유 특성과 자원, K-문화를 활용한 제품, (혁신트랙) 개인 라이프스타일(취향 등)을 반영한 차별화된 제품

< 글로벌 소상공인(K-소상공인) 육성 지원 체계 >



① 참여업체별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, 4대 소비재(식품, 화장품, 패션, 생활용품)를 중심으로 관세 및 통관, 수출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. 또한 진출 시장 판매에 적합하고 현지 문화를 반영한 제품개선 및 현지화 전략 수립도 지원한다.

② 비즈니스모델 고도화를 위한 제품 개발, 수출 브랜드(CI, BI) 디자인 고도화, 인증 및 산업재산권 취득 등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.

③ 글로벌 특화프로그램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입점 교육, 국제 박람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온·오프라인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.

「2026년 글로벌 소상공인(K-소상공인) 육성 사업」 공고 세부 내용은 소상공인 24 누리집(www.sbiz24.kr)과 중기부 누리집(www.mss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공고일인 4월 20일(월)부터 5월 15일(금)까지 소상공인 24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	책임자	과 장 김혜남 (044-204-7290)
		담당자	사무관 양승현 (044-204-7245)
			주무관 김명철 (044-204-7283)